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2003년 3월

발행인/이종헌 편집/서종학

주 소/(701-825)대구시 동구 신천3동 147-1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creation21.org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아티클

1. 노아 (5) 노아의 아내(3) - 이종헌

2쪽

2.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5) 본론 - 옥봉흠

3쪽

3. The BIBLE Comes Alive(2) by Clifford Wilson- 이종헌 역

5쪽

4. 창조단상 (4)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가?- 박종환

10쪽

인사말

3월은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새출발의 달입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어 긴장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긴장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쉬었던 구역 모임이나 성경공부반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배려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살람!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올림



1. 3월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월(3월)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일시: 2003년 3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창조과학회 사무실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47-1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Bible Comes Alive(성경고고학 연구)"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노아의 아내 (3)

노아의 아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창조 목적인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완벽한 역할을 완수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지도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농사를 짓던 수 백년 동안, 배를 만들던 1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거대한 집같이 생긴 배에서 동물들을 돌보던 1년여의 기간 동안, 그리고 포도주를 빚는 부업과 함께 농사짓던 몇 백년의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남편 노아가 보통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던 직분을 보조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할 때부터 남편의 가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라멕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대로 ‘안위’의 뜻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노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며느리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결혼할 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내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가올 심판을 꾸준히 귀에 담아두며 세 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며 또한 구원해 주시리라고 믿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은 대홍수 이후에 다가올 세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생활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여 털옷을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홍수에 대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셈과 함과 야벳이 그들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살 것과 새로운 세상에 대비한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는 그들을 통하여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세 아들이 남다른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다는 노아의 아내가 가족관계를 매우 친밀하게 이끌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그녀 자신이 먼저 아들들에게 본이 되며 신뢰와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내가 세 아들을 대한 태도를 짐작해 봅시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았습니 다. 또한 서로를 비교하거나 편애하지도 않았습니 다. 스트레스를 아들에게 푸는 등 학대를 하지 않았으며, 항상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밖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가도 그들과 저녁 늦게까지 어울리지 않고 돌아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때가 되면 이빨이 썩는지 사랑니가 나서 불편한지 살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경우에도 벌을 주다가 자기의 분노 때문에 더 가혹해지지 않았습니 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망할 놈의 자식아’, ‘커서 뭐가 될래’ 등의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상을 주고 칭찬해 주었으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망과 벌을 주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이들에게 비난을 사지는 않았습니 다. 부모 자신이 말과 생각과 행실에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소홀함이 없었지만 빈틈없이 간섭하지는 않았습니 다. 잘못을 들추어서 부끄럽게 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 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베푼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풍성한 사랑, 건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표현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젖을 먹일 때도 다른 데 눈길을 주지 않고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으며 아이들의 표현에 대해 항상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 그녀가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한 일은 자신이 신앙의 본이 됨으로 영적으로 바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녀의 영향은 세 며느리들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녀는 그녀 세대의 사람 중에서 방주에 들어갈 것을 믿은 유일한 여성이었으며, 다음 세대의 여성 중에는 그녀의 며느리들 세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구상의 인간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아내는 성격이 부드러운 면만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녀는 어느 정도 불굴의 의지를 소유했습니다. 한번도 비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배를 짓는 것을 도와주는 그녀에게 주변사람들이 나타내는 적대감과 조롱을 참아냈습니다. 첫번째 아들 셈을 낳는 데 있어서 그녀의 남편이 5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 그녀는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극복할 수 있는 냉혹한 마음도 가졌습니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착했을 때 방주에서 나와 세상 모든 생물의 죽음을 담담하게 대면했습니다.

이러한 여자는 결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살았던 여인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은 신앙심 있는 아내였으며,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위대한 것은 그녀를 제외한 세상 모든 여자들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조**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5) 본론 4. 성경에 나타난 숫자와 특별수들(2)
옥봉흙 (산업정보대 교수, 성동교회 장로)

(4) 성경에 나타난 수와 그 추상성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1사 1,000리(일사천리) 1확 1,000금(일확천금), 3강5륜(삼강오륜), 3한4은(삼한사은), 4분5열(사분오열), 4군자(사군자), 4서3경(사서삼경), 5복(오복), 6친(부모,형제,자매), 6미(쓰다, 달다, 시다, 맵다, 짜다, 싱겁다), 7전8기(칠전팔기), 7거지악(칠거지악), 100년해로(백년해로), 100약이 무효(백약이 무효), 100발100중(백발백중), 100문이 불여1견(백문이 불여일견), 장부1언 중1,000금(장부일언 중천금), 1,000추의 한(천추의 한), 1,000리마(천리마), 1,000리안(천리안), 1,000병10,000마(천병만마), 10,000사형통(만사형통), 10,000물(만물), 10,000수무강(만수무강)등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경우는 정확하게 그 의미와 같은 것이 있고 (4군자, 4서3경, 3강5륜, 5복, 6친, 6미, 7거지악....) 또 어떤 경우는 표현상 과장적인 것(10,000마리, 1,000리 안, 1,000추의 한, 1,000병 10,000마, 10,000수무강)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중요성과 뜻의 강조, 확실성을 위한 표현(7전8기, 100년해로, 100약이 무효, 100발100중, 100문이 불여1견, 장부1언 중1,000금)등이 있는데 표현상 과장적인 것은 그런대로 매력적인 단어로 받아주면서 해석해야지 틀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생활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요 표현상 그 중요성과 뜻의 강조와 확실성을 위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100년 해로 100발 100중) 꼭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 사람에게 99발 99중과 101중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 이처럼 수학에 있어서 숫자들은 추상성의 의미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의미 있게 전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경 속에서도 위에 지적한 것들을 찾아 볼 수 있는데,

① 왕상 17:12에 엘리야에게 대답하는 사르밧 과부의 대화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나뭇가지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으나 나뭇가지 두엇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앞에서 지적한대로 해석할 수 있다면 훌륭한 표현이다.

② 레 26:8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에서도 5명이 100명을 쫓는다면 100명은 5의 20배이며 $100 \times 20 = 2,000$ 명을 쫓아야 하는데 100이 10,000을 쫓는다고 했으니 의아해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1,000명 10,000마라고 했을 때 1,000명의 병사와 1,000마리의 말이 있으면 관계없지만 만 마라고 했으니 9,000마리의 말은 어찌란 말인가?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능력의 표현법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③ 창 31: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삷을 열 번이나 번역 하였느니라」 창31:41에 「내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14년), 외삼촌의 양 Ep를 위하여 육 년(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삷을 열 번이나 번역 하였으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담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꺼려할 때 여호와께서는 민 14:22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에서 10은 상당히 많은 뜻과 실제로 열 번의 수로 표시되었다.

④ 전도서 6:3에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도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에서 한사람이 100 자녀와, 또 신 32:30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 주지 아니 하셨던면 어찌 한 사람이 천(1,000)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10,000)을 도망케 하였을까」 에서 1당 1,000, 2당 10,000과 같은 것은 대단히 큰 수로 나타낸 능력의 표시법이다

⑤ 40년의 긴 세월을 삿 5:31下에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40년). 삿 8:28에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사십 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40년). 행 13:21下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삼하 5:4에 「다윗이 삼십 세에 위에 나아가서 사십 년을 다스렸으되…」. 왕상 11:42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사십 년이라」 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40년. 또 왕하 8:9에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사십에 싣고 …」 에서 40의 의미는 긴 세월의 긴 의미와 실제로 40이었고,

⑥ 창 24:60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며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에서 1,000만인의 어미라는 의미와, 또 단 7:10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에서 수종하는 자 1000, 1000과 또 그 앞에 시위한 자 10,000, 10,000은 웅장한 숲의 울울창창한 숲의 의미와, 또 계 5:11下에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에서 만만 천천은 무한히 많은 수라는 의미이다. 실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1천을 나타내는 숫자는 나일강의 연꽃모양을 본떠서 사용했고, 1만을 나타내는 숫자는 나일강의 언덕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풀의 모양에서 그 싹을 본떠서 나타내었고, 10만을 나타내는 숫자는 나일강의 작은 물고기의 모양을 그려서 나타내었다. 1백만을 나타내는 숫자는 사람이 놀라고 있는 모양을 본떠서 나타내었고, 1천만을 나타내는 숫자는 神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요, 1 천만 이상의 숫자를 이집트인들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모두 1로 표시하면 그만이었다. 즉 神만이 아는 數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창조**

다음 글 예고

(5) 성경에 나타난 수의 상징

(6) 고대인들의 수 개념

The BIBLE Comes Alive by Clifford Wilson

에블라에서 발견된 창조 서판



에블라의 창조 서판

에블라에서의 발견물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위대하신 분 “루갈”이 창조했다고 하는 위대한 창조 작업이 담긴 창조 서판이다. 그것은 바빌론 창조 서사시 보다 앞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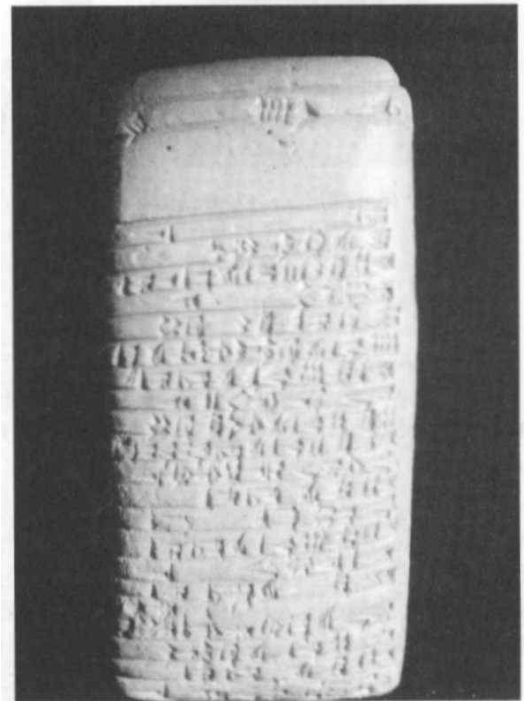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페티나토(Pettinato) 교수가 어느 정도는 창세기 1장과 유사한 내용의 창조 서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서판이 쓰여질 때까지는, 에블라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창조 서판 자체는 문자적으로 “위대하신 분”, 즉 궁극적으로 “왕”을 뜻하는 단어인 “루갈(Lugal)”과 관련이 있었다.

페티나토 교수가 이것을 공표했을 때(나도 미시간주 앤 아버(Ann Arbor)에 같이 있었다), 그는 이 경우에 위대하신 분 루갈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하늘들과 땅과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에는 서판의 나머지 부분이 아직 번역되지 않았었다.) 나중에 페티나토 교수의 해석은 다소 수정되었지만, 그렇더라도 이 단어는 여전히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 기록물에 대한 가정이 함축하는 의미는 멀리까지 영향이 미친다. 창조의 사실이 모세시대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으며, 창세기의 초기 기록이 점토 서판에 쓰여졌고, 아버지로

부터 아들로 전해져 내려와

서, 마침내는 모세의 손에까지 도달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가지고 비옥한 초승달지대(Fertile Crescent; 나일강과 티그리스강과 메르시아만을 연결하는 고대 농업지대-역주)를 건너왔을 것이며, 홍수에 관한 초기 판본(version) 중의 하나가 므깃도(Megiddo)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다.

이들 기록이 처음으로 쓰여진 것은 솔로몬 시대보다 수백년 이후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의 개념은 단지 허위에 불과하다. 초기 기록에 관한 성경 자체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고고학적인 증거가 그것을 뒷받침한다. 사실상,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들 기록들이 인간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거기에는 목격담과 사실에 관한 기록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 그것들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다.



책꼴 장식을 갖는 바빌론 서판

이 책꼴 장식은 창세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서판이 연속적인 서판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해준다.

책끝 장식(colophon)을 갖는 바빌론 서판

창세기의 기록과 주변 나라들의 기록 사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극적인 차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은 책끝 장식, 즉 점토 서판들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이는 우리에게, 이것이 그러한 서판들의 연속물 중의 하나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창세기 기록에 보면 다음과 같이 특색 있는 구문으로 된 그러한 책끝 장식을 여러 번 보게 된다: “...의 세대라 (There are the generation of ...)” 책끝 장식이 지정된 서판마다 이 구문을 보게 되는데, 이는 특정 독자에 관련된 간단한 역사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창세기 기록이 점토판에 쓰여졌으며, 그 시기는 거기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다. 서판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그 서판에서 제시해 왔던 주도적인 인물이 죽는 시기에 그 서판이 끝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이들 소중한 문서가 장례식 때에 넘겨지는 것 같다! 아마도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처음에 어떤 구절들을 이야기식으로 말하면 가까운 후손이 곧바로 받아냈을 것이다.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서판들이 글로 써 있다. 물론 이것은 바빌론 사람들이 쓴 것 같은 괴상한 기록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성경에는, 신들이 서로를 반으로 잘랐거나, 악한 신의 피를 점토와 섞어서 남자를 만들었다는 등의 어리석은 이야기가 없다.

창조에 관한 창세기 기록의 존엄성과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은 수세기 동안 변조되고 왜곡된 다른 기록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에블라의 별집같은 오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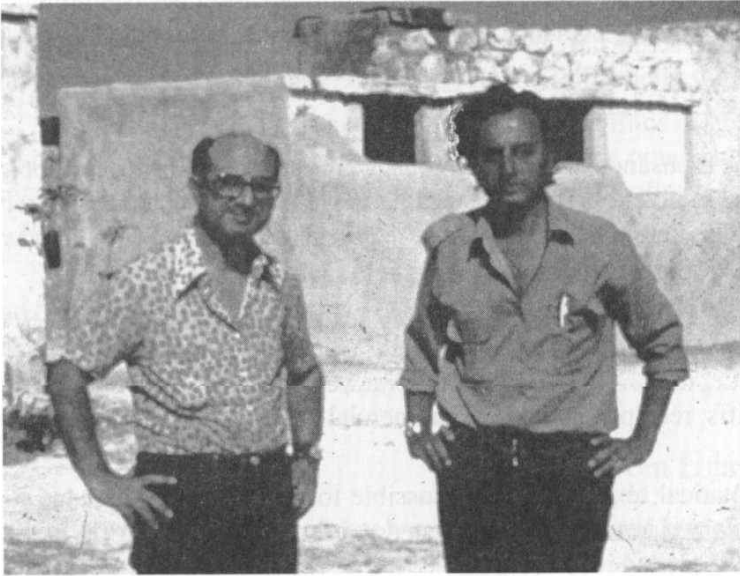
시리아 에블라의 별집같은 오두막

텔 마르디크에 있는 이 오두막들은 고대 수메르(현대 이라크)에서 발견되는 오두막과 같은 것이다. 이는 초기 시대의 명성과 번영 사이에 극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별집같은 오두막은 BC 2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가서, 성경에서 시날(Shinar)이라고 하는 고대의 수메

르에 있던 다른 오두막들과 현저히 유사하다. 고대 에블라의 지명인 텔 마르디크(Tell Mardikh)는 다마스쿠스와(Damascus) 알렙포(Aleppo)사이의 주 도로 상에 있다.

로마 대학의 파올로 마티에(Paolo Mattiae) 교수는 1964년 이래 그곳에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968년에 그의 팀이, 여신 에쉬타르(Eshtar)에게 바쳐지고 또한 에블라의 왕이라는 뜻의 이비트 림(Ibbit-Lim)이라는 이름을



에블라의 발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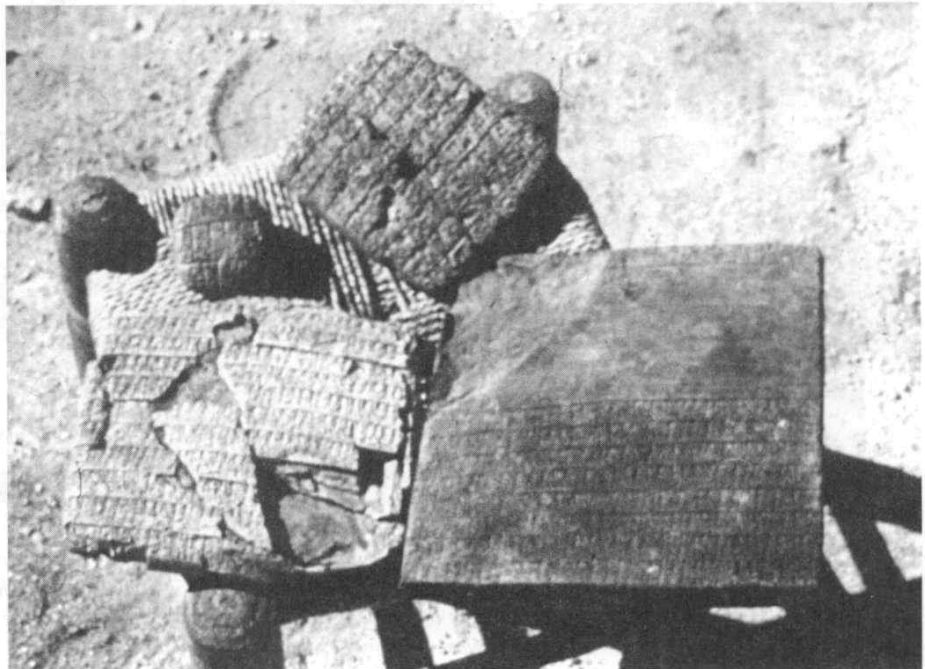
이탈리아인 교수 파올로 마티에(오른 쪽)와 지오바니 페티나토(왼쪽)

가진 조각상 하나를 발굴해 내고 나서부터 그의 업적이 빛나게 되었다. 이로써, 과거에 수메르인들과 아카디아인 및 이집트인들의 원전에 알려져 있던 그 도시의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인정되었다. 지금은 이 고대의 가나안 지역에서 수천개의 서판들이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사실 중의 하나는, 이 지역에서의 중요한 구조물 중 일부가 지면 바로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인 유목민들과 전 세계로부터 온 여행자들이 수 세기 동안 그 지역을 지나면서 두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페티나토 교수와 마티에 교수

사진의 왼쪽은 지오바니 페티나토 교수이고 오른쪽은 로마 대학의 학자인 파올로 마티에 교수이다. 마티에 교수는 에블라에서 현저한 발굴물을 발견한 발굴자였고, 페티나토 교수는 같은 동포인 마티에 교수가 불러서 로마에서 왔는데, 그는 에블라의 이 고대 기록물의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던 최초의 금석학자였다.



에블라에서의 문서 기록 발견

에블라에서의 발견물은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공예품과 구조물이 훌륭하며, 어떤 것은 4,000년 이전의 것이다. 일부는 현재의 지면 가까이에 있다.

발굴물들이 공표되었을 때 미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마티에 교수는 건축물과 공예품의 양식과 같은 고고학적 증거들을 강조했고, 언어학 교수인 페티나토 교수는 새로 번역된 서판들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성경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시리아 관리가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이스라엘 또는 성경협회와 공조하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두 지도자가 분리되었다: 페티나토는 오래지 않아 에블라 팀의 일원이 되었다. 더욱이, 수천개의 서판이 더 발견되었다는 루머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지역에서의 발견물들에 대해서는 침묵할 것이 지시된 듯 하다. 성경계에서는 구약의 배경에 대한 매우 놀랄만한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이 강요되었다.

에블라 서판이 발견된 곳



서판이 발견된 곳

Bryant Wood 교수가 에블라에서 사진찍다. 여러 개의 조각들이 이 방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기록으로부터 에블라가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그 정체성의 분명하게 확립되었다. 에블라는 수메르 및 이집트와 “문명의 요람”자리를 놓고 경쟁해 왔다. 사원과 궁전과 같은 건물, 덮여있는 흙무더기의 불과 몇 인치 아래에 있었다.

이 장소에서 수천개의 점토조각들이 발견되었을 때 대단히 흥분했으며, 곧 이어 마티에 교수와 페티나토 교수는 “문명의 요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또 다른 문명에 관하여 세상이 깜짝 놀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뒤이어 페티나토 교수는 이들 고대(古代, Paleo)-가나안 민족의 잃어버린 언어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이 많은 서판들이 발견된 곳이다. 문학적 원전의 내용은 신화적 배경, 마법, 격언 모음, 여러 신들에 대한 찬가 등이다. 신들에 관한 종교의식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신들 중 다수가 후대의 바빌론 문헌에 등장한다. 대부분의 서판들이 경제적인 문제, 관세, 영수증, 기타 상거래 등을 취급한다. 또한, 신들에 대한 다양한 제물도 설명되어 있다.

문법적 원전에 들어있는 음절표도 있어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휘에 관한 원전도 있는데, 그 안에는 거의 1,000개의 번역된 단어들이 있고, 18개의 복사본이 있다.

이것이 서판의 첫 번째 대량 저장소가 발견된 곳이다. 그곳에는 20,000개 이상의 조각(처음에 언급했듯이, 번역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서판”이 아니다)이 있었다.

발견된 조각의 전체 숫자는 그 시기까지 발견된 기타 비슷한 시대의 다른 서판 전체보다 네 배나 많은 것이다. 그것은 분명 고고학자들의 꿈을 충족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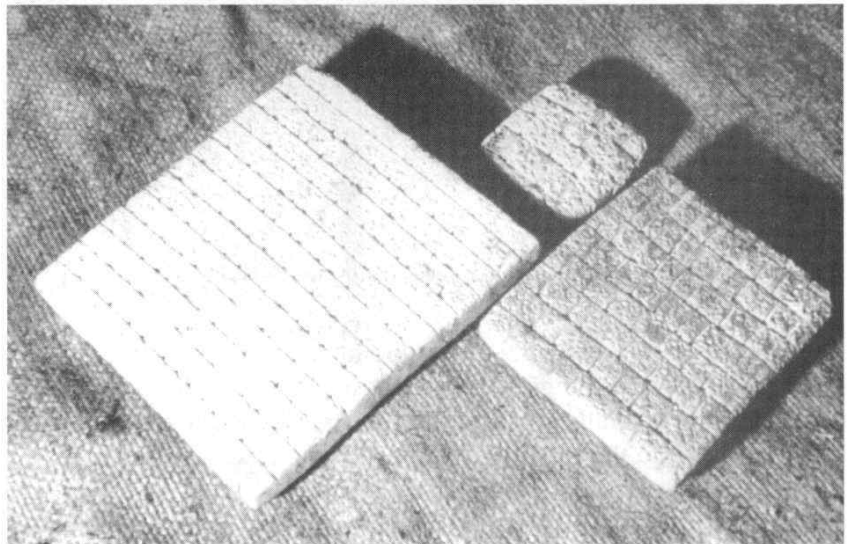
에블라에서의 발견물에 대해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고대의 가나안 문명이 사실상 고대 수메르 및 이집트 문명과 동시대의 것임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문명의 요람”이라는 제목이 그들의 것임을 주장하는 이들 세 문명(수메르, 이집트, 가나안 문명)이 현재로부터 불과 5,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인간이 수백만년 - 아니 백만년 - 동안 존재해 왔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5,000년 이전에는 정착된 문명과 문화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기록은 초기의 사람에 대해 불과 수천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에블라에서 나온 서판

여기에 에블라에서 발견된 몇 개의 서판이 있다. 그들 중에 창조 서판이 있다고 말했었다. 한 분의 위대한 존재(“루갈”)가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창조에 관한 기록이 글로 쓰여진 것은 모세 시대보다 1,000년 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다.

초기에 기록물이 있었다는 데 대한 성경의 인식은 매우 분명하며, 이들 에블라 서판(크기가 1인치에서 거의 2피트까지 광범위하며,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역시 인간의 초기 역사에 기록물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분명히 해준다. 에블라 서판의 일부는 거의 BC 2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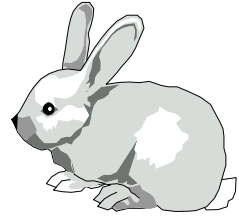
다양한 크기의 서판

에블라에서 나온 서판은 크기가 1 인치에서 거의 2 피트까지 다양하다. 그것들은 무역, 문학, 사전 및 종교 원전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창세기 5:1에 이렇게 써 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This {is} the book of the generations of Adam>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 구절에서 “계보”(book; 책)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류 최초의 세대가 읽고 쓰는 것을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창세기 기록은 최종적으로 모세가 편집하고 조합하였는데, 원래는 목격자들로부터 전해 내려왔음이 분명하다. 고등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그것들이 꼭 구두로 반복되는 이야기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문서로 전해질 수 없다는 근거가 없다. **창조**

창조단상 (4)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가?

박종환 (경북대 교수, 화학)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가?

레위기 11장6절에 보시면 광야생활을 하던 유대백성들이 토끼를 보더니 먹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먹지 마라,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해야 하고, 발굽은 갈라진 동물, 즉 유재류 동물이라야 먹기 좋은 동물이다. 그런데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합격이지만, 발굽은 안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토끼는 동물학계에서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먹느냐 마느냐하는 순간에 이 부분을 다르게 영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큰일 난 겁니다. 모든 과학자들과 모든 농부들이 토끼는 새김질 안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고 하였으니까요. 어떡하지요? 그래서 톰슨 성경에서는 주석을 달 때 '토끼는 새김질을 안 하는데, 평소에 입을 오물오물하니까, 모세가 오해하였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헛갈릴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유명한 동물학자인 그리지맥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동물원 원장도 하시고요, 유명한 동물학자인데, 이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토끼 때문에 큰일 났네 하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직접 연구해 보고 결론을 내리자.. 한 것입니다.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을 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먹이를 주고 옆에 앉았을 때는 절대 되새김질을 안 하던 토끼들이 모든 사람이 집에 들어가 잠이 든 시간인 밤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캄캄한 토끼 굴에서 혼자 몰래 되새김질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되새김질에는 특수한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토끼똥입니다. 토끼는 두가지 똥을 누는데 하나는 진짜 똥이고, 다른 하나는 되새김질에 필요한 특수 약품입니다. 그래서 토끼 깨끗하게 키운다고 똥을 다 치워 버리면 영양결핍으로 토끼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죽지요.

1999년이 토끼해였지요. 그래서 정초에 KBS에서 토끼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도 토끼가 되새김질하는 동물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모두들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토끼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